120분 혈투…전남 PO 4강 진출

골키퍼 염동균 선방, 강호 서울에 승부차기 勝

K-리그챔피언십 25일 성남과 준플레이오프전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6강플레이오프에서 전남 곽태휘가 승부차기 마지막 킥커로 출전해 골을 넣어 승리를 확정지은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 전남 드래곤즈가 피말리는 승부차기 끝에 FC서울을 꺾고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전남은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6강 플레이오프에서 전반 12분 이규로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전반 15분 정조국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1-1로 비겼다.

연장 전후반까지 승부를 내지 못한 전남은 승부차기에서 서울의 키커 2명의 슛이 골대를 벗어나고 골키퍼 염동균이 한 차례 선방하면서 3-2로 승리했다.

이로써 전남은 성남과 25일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다.

지난 1일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1-1로 비기고 나서 20일 만에 6강 플레이오프에서 재격돌한 서울과 전남은 전반 초반부터 한 골씩 주고받는 치열한 난타전으로 경기를 이끌었다.

선제골은 전남의 몫이었다. 전반 12분 역습 상황에서 웨슬리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쪽 공간으로 파고든 이규로에게 볼을 내줬고, 이규로는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돌진해 수비수 사이를 뚫는 강력한 왼발 슛으로 서울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하지만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전남과 비기며 3위로 내려앉았던 아픔을 맛본 서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으로 이적하는 기성용이 페널티지역 부근까지 볼을 치고 들어가 재치있게 볼을 찔러주자 최종 수비수 뒷공간으로 파고든 정조국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가볍게 볼의 방향을 바꿔 동점골을 터트렸다.

먼저 장군을 외쳤다가 멍군을 당한 전남은 전반 20분 주광윤의 프리킥이 골키퍼 손끝에 맞고 크로스바를 살짝 넘으면서 추가골 기회를 놓쳤다.

후반에도 치열한 허리싸움을 계속한 서울은 후반 4분 기성용의 중거리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전남도 후반 12분 웨슬리의 찔러주기 패스가 골 지역에 있던 슈바에게 이어졌지만 뛰어나온 골키퍼가 먼저 낚아챘다.

급해진 서울은 후반 25분 수비수 김진규가 '깜짝' 중거리포로 골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연장 승부에 들어갔고, 서울의 세트피스 전문 기성용이 두 차례 프리킥 기회를 모두 허공으로 날리면서 결국 진땀 나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피를 말리는 승부차기에서 승리의 여신은 끝내 전남에 웃음을 지었다.

전남은 1번 키커 김형호와 3번 키커 송정현이 서울의 골키퍼 김호준의 선방에 막혔지만 서울의 이상협과 이종민이 실축하고 전남 골키퍼 염동균이 기성용의 슛을 막아내면서 힘겹게 3-2로 이겼다.

승부차기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염동균은 "경기 직전 골키퍼 코치에게 서울 선수들의 슛 방향에 대해 특별 과외를 받았다. 기성용의 슛도 예측해서 막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블로킹 쯤이야" LIG 1라운드 전승 22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09-10 V리그 LIG손해보험-신협상무전에서 LIG 김요한(5번)이 신협상무 남재원(14번), 김민욱(18번), 양성만(15번) 등의 블로킹을 피해 백어택을 시도하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1라운드를 전승으로 장식했다. /연합뉴스

이용대-이효정 금빛 셔틀콕

中오픈배드민턴 혼복 우승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21)-이효정(28·이상 삼성전기)이 마침내 '천적' 쳉보-마진(중국)을 꺾었다.

이용대-이효정은 22일 중국 상하이 얀센 체육관에서 열린 중국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혼합복식 결승에서 쳉보-마진을 세트스코어 2-1로 제압했다.

세계랭킹 1위의 이용대-이효정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과시하며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쳉보-마진 앞에서는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6번 만나 싸웠지만 모두 패했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쳉보-마진이 의기투합하기 전이라 맞붙을 기회가 없었다.

이-이 듀오는 이날 경기에서 1세트를 먼저 따냈으나 2세트를 쉽게 내주면서 불안감을 던졌다. 하지만 3세트에서 다시 안정을 찾았고 속공과 강력한 스매싱을 잇따라 내리 꽂으며 지긋지긋한 징크스를 떨쳐내는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정의선 亞양궁연맹회장 재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아시아양궁연맹(AAF) 회장으로 재선출돼 오는 2013년까지 이 조직을 계속 이끌게 됐다.

20일 현대·기아차그룹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AF 32개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연맹 회장으로 다시 추대됐다.

정 부회장은 2005년 AAF 총회에서 회장으로 처음 뽑힌 후 4년 임기를 채웠다.

정 부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권역별 상설 트레이닝 센터 설립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 아시아 양궁이 각 대륙 연맹 중 가장 모범적이며 우수한 연맹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재선 소감을 밝혔다고 현대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광양제철고 왕중왕전 우승 눈 앞

서울 장훈고 꺾고 28일 풍생고와 한판승부

광양제철고와 경기 풍생고가 2009 대교 눈높이 전국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다툰다.

광양제철고는 22일 충남 천안 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이대명의 선제골과 이종호의 추가골로 서울 장훈고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클럽팀 광양제철고는 성남 일화 클럽팀 풍생고와 2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결승을 벌인다.

광양제철고는 전반 36분 이대명이 선제골을 뽑았고 이어 42분 이종호가 헤딩골을 꽂아 장훈고를 따돌렸다.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한국의 8강 진출에 앞장섰던 이종호는 세 경기에서 6골을 뽑아 왕중왕전 득점왕을 예약했다.

앞서 벌어진 경기에선 풍생고가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기고 터진 미드필더 황의조의 결승골에 힘입어 경기 신갈고를 1-0으로 뿌리치고 결승 진출 티켓을 얻었다.

풍생고는 후반 44분 황의조가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공을 놓치지 않고 오른발로 밀어 넣어 결승골을 뽑았다. /연합뉴스

기성용 '올해의 청소년선수' 유력

한국 축구대표팀의 간판 미드필더인 '허정무호의 황태자' 기성용(20·FC 서울)이 2009 아시아축구연맹 올해의 청소년 선수상 시상식에 참석하려고 23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기성용과 함께 AFC가 선정하는 '올해의 감독'으로 유력한 허정무 대표팀 감독과 AFC 챔피언스리그 제패로 '올해의 클럽팀'으로 낙점된 포항 스틸러스의 김태만 사장이 시상식에 참석한다.

부문별 수상자는 오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릴 AFC 2009 시상식 때 발표된다. /연합뉴스

조애니 로셰트 우승…아사다 마오 탈락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자 확정

2009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은메달리스트 조애니 로셰트(캐나다)가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금메달을 차지했다.

로셰트는 22일(한국시간) 캐나다 키치너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안정된 연기를 앞세워 112.90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70.00점)을 합쳐 총점 182.90점으로 알리샤 시즈니(미국.163.53점)를 19.37점 차로 크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 3차 대회 우승자인 스즈키 아키코(일본)는 전날 쇼트프로그램(53.10점)에서 부진해 8위로 밀렸지만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94.62점으로 5위를 차지해 종합 5위에 올랐다.

한편 이날 6차 대회로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가 모두 막을 내리면서 내달 3-6일 일본 도쿄에서 치러질 그랑프리 파이널 싱글 출전자 6명이 모두 확정된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는 끝내 탈락했다. /연합뉴스

스포츠 주개

23일(월)

▲월드 그랜드 챔피언스컵 배구 〈쿠바 : 이란〉(13 : 30), 〈브라질 : 일본〉(19 : 00·MBCESPN)

▲V리그 〈흥국생명 : GS칼텍스〉(16 : 40·KBSN SPORTS)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 KB국민은행〉(18 : 50·SBS스포츠)